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황정음 MBC 주말극 출연

'내 마음이 들리니' 캐스팅



텔런트 황정음이 MBC TV 새 주말극 '내 마음이 들리니(가제)'의 여주인공 봉우리 역으로 캐스팅됐다.

'육망의 불꽃' 후속으로 다음달 말 방송 예정인 '내 마음이 들리니'는 '그대 웃어요'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의 문희정 작가와 '환상의 커플'의 김상호 PD가 손을 잡은 작품이다.

황정음이 맡은 봉우리는 부모 아빠를 모시고 사는 억척스럽지만 밝고 순수한 아가씨다.



“제가 좀 요염했나요?”

‘조선 명탐정’ 한지민

“분량 적어도 신비주의 매력 있어 도전
탐정 혼 빼앗는 객주...섹시함은 필수 조건
산폭대기 촬영 힘들었지만 영화작업 즐거워”

“사극은 많이 했으니 현대물 쪽을 보고 있었는데 시나리오를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객주라는 캐릭터가 되게 궁금했죠. 분량이 적다기보다 매력 있고 도전해보야겠다는 느낌을 봤죠.”

배우 한지민은 영화 '조선명탐정-각시투구俠의 비밀'(27일 개봉)에 출연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탐정 역의 김명민이나 개장수 역의 오달수에 비해 분량이 적은 편이지만 별로 개의치 않았다고 했다.

더 요염한 모습으로 탐정의 혼을 빼앗는 인물로,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는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사람들의 궁금증을 일으키는 인물이라 매력을 느꼈다”면서 “섹시함이 필수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신은 야외 촬영이 많지 않았지만, 화장실도 없는 산폭대기에서 물도 거의 안 마시고 목마름과 배고픔을 참아가며 12시간 동안 촬영하는 것은 고역이었다고 털어놨다.

한지민은 소지섭 등과 함께 출연한 드라마 '카인과 아

벨' 이후 1년 반을 쉬었다. 드라마 2편과 영화 1편을 준비하다 제작이 무산됐기 때문에 공백기가 생겼다면 아쉬워했다.

그는 “순간순간 행복하게 살자”고 항상 생각한다고 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그는 제3세계와 북한 어린이를 돕는 단체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데도 열심이 다. “배우라는 직업을 가져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느껴요. 사람들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더 커지죠.”

그는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게 우리의 임무다. 더 많이 알려 사람들이 동참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예전에는 보여주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많았지만, 이제는 대중의 인식도 성숙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우리 나이로 서른이 됐다. “서른은 내가 꿈꿨던 나이이다. 서른이 되면 성장했을 거란 막연한 느낌이 있었다”고 말했다.

“영화에서는 특히 분량이 적더라도 매력이 있거나 임팩트 있는 역이면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영화를 별로 못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캐릭터라도 맛있게거나 단편적인 것보다는 분량에 상관없이 매력적인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그가 맡은 한객주 캐릭터는 등장부터 요염한 모습으로 탐정의 혼을 빼앗는 인물로,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는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사람들의 궁금증을 일으키는 인물이라 매력을 느꼈다”면서 “섹시함이 필수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신은 야외 촬영이 많지 않았지만, 화장실도 없는 산폭대기에서 물도 거의 안 마시고 목마름과 배고픔을 참아가며 12시간 동안 촬영하는 것은 고역이었다고 털어놨다.

한지민은 소지섭 등과 함께 출연한 드라마 '카인과 아

“꿈의 무대 설레요”

내달 3일 카네기홀 공연 이선희

“제 목소리가 좀 쉬지 않았나요?” 가수 이선희(47)의 목소리는 여는 때보다 낮게 깔렸다. 다음달 3일 미국 뉴욕 카네기홀 단독 공연을 앞두고 새벽까지 실천처럼 연습한 탓이다.

1984년 'J에게'로 강변가요제 대상을 수상하며 데뷔, 올해로 음악 인생 27년째인 그는 카네기홀의 3개 홀 중 2800여석 규모의 아이작스턴 오디토리움 무대에 오른다. 이 무대에 서는 국내 대중 가수로선 조용필, 인순이에 이어 세 번째다.

“내가 데뷔하던 시대의 가수들에게는 카네기홀이 주는 무게감이 있다”며 “그곳에 서면 다 이룬 것 같은 느낌이 크다. 나 역시 ‘연젠가는 저 무대에 서 봐야지’란 생각을 했다. 그만큼 부담이 생기니 여는 공연 때와 달리 실천처럼 100% 소리를 다 내서 연습한다. 스태프가 ‘대충하자, 쉬엄쉬엄 하자’더라”며 웃었다.

미국 단독 공연은 라스베이거스 공연 이후 10여 년 만이자 두 번째다. “카네기홀에 문의하자 음향에 대해 조언하더군요. 카네기홀은 클래식 공연 위주로 설계돼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크게 울려요. 그래서 전자 악기 소리는 ‘왕왕’대며 사랑으로 번지죠. 전자 악기의 볼륨을 잘 잡으려고 유명 가수의 카네기홀 공연 때 음향을 담당했던 분을 섭외했어요.”

레퍼토리도 한국 한국 손수 골랐다. 보통 음반을 많이 내고 히트곡이 많은 가수는 공연에서 대중이 좋아하는 곡과 자신이 아끼는 곡을 적절히 섞곤 한다. 그러나 27년 간 사랑받은 히트곡 위주로 선택했다. ‘알고 싶어요’ ‘나 항상 그대를’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J에게’ ‘갈등’ ‘한바탕 웃음으로’ 등이다.

“가급적 원곡을 손상시키지 않고 세련된 사운드로 들려주려고요. 과거 곡을 그 반주 그대로 들려주면 시대의 격차란 게 있으니까 아바 촌스러워서 깜짝 놀랄걸요? 그래서 국내 스태프로 꾸려진 밴드, 오케스트라의 임무

가 막중해요.”

특별히 준비한 곡은 그가 평소 애창하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더웨이 위 워(The way we were)’ ‘메모리(Memory)’.

이번 무대에는 특별한 두 사람이 함께 한다. 같은 소속사(후크엔터테인먼트) 연기자 겸 가수 이승기와 배우 이서진이다. 이서진은 머라이어 캐리, 셀린 디온 등 팝스타들의 공연에서 할리우드 배우들이 주인공을 소개 하듯이 오프닝 무대에 올라 이선희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승기는 이선희의 헌정 무대를 꾸민다.

“데뷔때부터 꿈꿔왔던 로망
27년간 사랑받은 노래 세련되게 편곡
작은 무대든 큰 무대든 늘 새로워”



“두 사람이 뉴욕행을 자청했어요. 모두 바쁜 스타인데 시간을 빼준다니 고맙죠. 이서진 씨는 직접 해외 팝스타 공연의 사례를 들여 이런 아이디어를 내줬어요.”

그는 “여자 가수로선 아이돌이란 호칭을 처음 얻었으니 난 아이돌의 원조”라며 “당시 방송사에서도 여학생들이 여자 가수를 쫓아다니는다고 의아해 했다”고 웃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데뷔해 지금껏 빛 바래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한 건 신뢰하는 소속사의 힘이라고 겸손하게 공을 돌렸다.

“팬들은 좋아하는 가수가 곁에 음악 활동을 하길 바래요.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바람처럼 사라지기 쉽죠. 그런 면에서 좋은 소속사를 만난 건 복이예요. 드라마 ‘내 여자 친구는 구미호’와 ‘대물’의 OST를 부른 것도 처음엔 ‘에들건데’란 생각에 움츠러들었죠. 하지만 소속사가 용기를 내도록 설득했고 그래서 도전했어요.”

그는 여전히 작은 무대든, 큰 무대든 그 공간을 떠올리면 설렌다고 했

다. 이번 무대는 특히 시카고에서 유학 중인 고2 짜리 딸이 “엄마 좋아, 정말 좋아”라며 격려해주는 힘이 난다고.

다음달 2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그는 공연을 마친 후 며칠 뉴욕에 머물 계획이다. ‘뉴욕 초짜’인 이승기, 소속사 식구들과 공연 관람 예정이라고. “하지만 빨리 돌아와야 해요. 5월 21-22일 세종문화회관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공연을 하거든요. 다시 새로운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연습뉴스

스타박스 24시 사우나·찜질방

땀만 빼는 찜질방은 이제 가라!

스타박스가 광주 시민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명소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사우나·헬스·에어로빅·요가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Multi-Plex Fitness System’으로 잃었던 ‘당신의 젊음’을 되찾으세요!

| 회원가입 · 상담문의 | 062-383-7272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3-4 |
(내비게이션에서 '스타박스 사우나' 주소를 검색하세요)